

2~3차시

4·19 혁명과 시민들의 노력을 알아봅시다



● 다음 사진을 살펴봅시다.



<청와대 영빈관 맞은편 분수 광장 바닥>



<4.19 최초 발포 현장 동판>

이승만 정부는 4·19 혁명 당시 부정 선거 항의 시위에 참여한 시민과 학생들을 향해 발포하였다. 이로 인해 시민 100여 명이 숨지거나 다쳤으며, 숨진 사람 중에는 초등학생도 있었다. 서울시는 4·19 혁명 58주년(2018년)을 맞아 경찰의 첫 발포가 있었던 청와대 앞에 정부의 억압과 탄압에 대한 저항을 상징하는 역삼각형의 바닥 동판을 설치하였다.

Tip! 사진에 대해 먼저 살펴보고 이야기를 나눈 뒤, 짧은 기사글을 함께 읽는다.

- 동판은 어디에 있나요?
- 서울시가 동판을 설치한 까닭은 무엇인가요?
- 동판의 모양을 역삼각형으로 만든 까닭을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